

## 앙고라 산양(Angora goat)과 모헤어(Mohair)(1)

앙고라 산양의 털을 모헤어라고 하며, 의류소재로서 대단히 중요한 수모종의 하나다.

모헤어란 용어의 어원은 터키어의 Mukhyer(최고의 털)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모헤어 섬유가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구약성서로서 BC 15세기경 모세가 신에게 공양하던 제단을 장식하는데 모헤어와 실크로 교직된 직물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모헤어 섬유를 산출하는 앙고라 산양은 약 5천 년 전에 유목민에 의하여 티벳, 히말라야 고원지대로부터 터키로 유입되어 정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학적으로는 서식 환경 그리고 모질에 대해서도 캐시미어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 친척별이다.

터키에 들어온 앙고라 산양은 18세기경까지는 터키에서만 사육되었고, 터키 제정시대에는 특히 외부로의 반출을 엄하게 통제하였다. 고대 터키의 각 지방에서는 독특한 수방(물레질), 수직과 손 염색에 의하여 아름다운 숄(shawl), 의류, 카펫과 같은 깔개 등으로 가공되어 비싼 값으로 유럽 각지로 수출되었다.

앙고라 산양의 원산지는 터키이지만, 현재는 터키, 미국 그리고 남아연방의 세 나라가 모헤어 3대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터키의 아나토리아 고원지대와 연안부, 남아연방의 포트 엘리자베스 북부인 안센빌 중심의 500 제곱킬로미터 면적 그리고 미국 텍사스 남부 산 안젤로와 산 안토니오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부터 멕시코 국경지대인 델 리오에 이르는 500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광활한 3대 지역이 모헤어 면모의 산지다.

앙고라 산양은 면양과 달리 초원에서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잔잔한 관목이 많은 구릉지에서 관목의 어린잎을 먹고 살기 때문에 면양 사육보다도 갑절의 수고가 든다. 그러니

까 구약성서에 나오는 모세가 이끌던 앙고라 산양의 사육조건과 비슷한 곳이 현재도 각광을 받는 곳이다.

모헤어 섬유는 면양의 울과 달리 흡습의 속도가 두 배 정도 빠르다고 하며, 따라서 의류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특히 모헤어 섬유는 여름용 소재로서는 최고로 가볍고 시원하며, 모헤어 트로피칼이란 소재로 세계 최고급의 남성용 복지로 사용된다. 겨울용 소재로서도 최고로 가볍고 따뜻하기 때문에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호화롭게 취급된다.

또한 섬세한 광택과 부드럽고 매끈한 펠트제품은 축융도 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니트제품 또는 여성복지, 코트지, 수편모사 머플러 담요 등 외에도 최고급 의자 커버로 이용된다. 가장 호화롭다는 여객선 퀸 엘리자베스호나 고급 호텔 로비의 인테리어, 가구, 벤츠나 롤스로이스 최고급 승용차의 시트 커버로도 사용되고 있다.

모헤어 섬유의 색상은 순백색에 가까우나 담황색, 적갈색의 모헤어도 있다. 모헤어 섬유는 매끄럽고, 아름다운 광택이 풍부하며, 탄성이 좋으나 질감은 다소 단단한 편이다.

생후 2년 반이 되는 동안에 울이 점점 굵어지는데, 섬유의 섬도는 새끼 양의 것이 평균 24-27  $\mu\text{m}$ , 어미가 되면 평균 40  $\mu\text{m}$ 이고, 길이는 1년에 200-250 mm 까지 자라기 때문에 미국이나 남아연방에서는 1년에 2회 전모하며, 상품으로서의 모헤어는 두 번 깎는 것이 100-150 mm, 터키처럼 1년에 한번 깎는 것이 200-250 mm가 보통이다.

모헤어 섬유는 굵기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데, 통상 양모와 혼방하여 소모사나 방모사를 만든다. 방모사는 겨울용 니트웨어로, 소모사는 여름용 남성 슈트 감으로 만들며 더 굵은 헤어는 카펫이나 러그(Rug)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 (1) 미국의 앙고라 산양

미국은 1849년 미국 남 캐롤라이나주의 데이비스(Davis)박사가 터키의 성공적인 면화

재배 기술지도의 공으로 두 마리의 수컷과 일곱 마리의 암컷 양고라 산양을 분양받아 1861년에 시작된 남북전쟁 후의 텍사스에 입식하고, 증식을 거듭하여 지금은 세계 제 1의 모헤어 울 생산국이 되었다. 미국에서도 97%가 텍사스 주에 집중되어 있고, 애드워드 플래토(Edwards Plateau) 지방은 세계 최대의 모헤어 산지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생후 6-7개월 된 양고라 새끼양의 털을 깎는데, 이 모헤어 울을 Fall Kid Mohair 또는 No.1 Kid Mohair 라고 하며, 이때의 섬도가 가장 가늘고, 평균 24  $\mu\text{m}$  까지도 나온다. 그 다음 봄 두 번째 깎는 울은 Spring Kid Mohair 혹은 No.2 Kid 라고 하며, 울의 섬도는 28.5  $\mu\text{m}$  정도가 된다. 생후 1년 6개월이 지나서 깎는 세 번째 울은 Yearling Mohair 또는 No.1 Grown Mohair 라고 하는데, 섬도는 평균 30.5  $\mu\text{m}$ 이 된다. 네 번째 부터의 전모는 Adult Mohair라고 하며, 섬도에 따라 No.2 Grown에서 No.4 Grown 까지 구분된다.

미국에서는 Mohair Wool Council 이란 기관을 설치하고, 양고라 산양의 사육, 관리, 품종 개량, 등급 조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마케팅에 노력하고 있다. ♣ (공석봉)



양고라 산양